

내년 12월이면...순천시 신청사 입주

흙막이 공사 마무리 단계 '순조' 지상 6층 규모, 시민광장 들어서 2026년 현청사 철거 중앙공원 조성

순천시의 숙원 사업인 신청사 건립 공사가 내년 12월 입주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순천시에 따르면 신청사는 시민광장 조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침체한 원도심에 새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신청사는 현 청사에서 동측으로 확장해 조성되며, 연면적 약 4만 7000㎡,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건립된다. 공무원들의 근무공간을 넘어 시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공간 조성이 특징이다.

신청사 1층에는 북카페, 종합민원실, 직장어린이집, 금융기관이 들어서고 2층부터 6층은 업무공간, 3층은 구내식당과 코워킹스페이스 등으로 공간 등으로 구성된다.

지하에는 주차장 519면을 조성한다. 특히 청사 부지 내에 약 6300㎡의 중앙공원을 조성하고 곳곳에 크고 작은 중정 6개소를 만들어 시민들에게 항상 열려 있는 쉼터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청사 건립 공사는 현재 흙막이 공사 마무리 단



순천시 신청사(신청사+문화스테이션) 건립 조감도.

계에 접어들어 곧 터파기 공사가 진행될 예정으로 공정률은 4%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시는 원도심으로 사람을 끌어모으는 새로운 중심점이 될 시민광장 조성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민광장은 신청사 맞은편에 면적 1만 5310㎡ 규모로 조성되며 애니메이션을 중심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담을 예정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신청사 건립은 시민광장 부지 조성을 위한 실시계획을 거쳐 2025년 말까지 토지 보상 등 협의를 마치고 2026년 12월 완공할 계획이다"이라며 "시민광장은 신청사와 육전을 잇는 문화와 휴식의 중심지 역할을 하며 원도심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고흥군 한농대 학생들 대상 맞새간 농업기관 현장실습

고흥군은 한국농수산대학교 예비 졸업생을 대상으로 '농업기관 현장실습'을 추진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에는 고흥에 사는 농수산대학교 3학년생 2명을 교육한다.

고흥군은 예비 졸업생에게 주요 농업기관 현장실습 기회를 주고, 창업 준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토양검정실, 조직배양실, 미생물배양실 등 과학영농 시설과 특화작목연구단지 견학도 진행한다.

농수산대학교 졸업생 가운데 선진적인 농업 기술을 적용한 농장을 함께 찾는 등 현장 중심 교육을 벌이고 있다.

전주에 있는 한국농수산대학교는 현장 중심의 지식·기술·경영 능력을 갖춘 미래 농업 경영인 양성을 목적으로 1997년 3년제 전문대학으로 개교했다. 이곳에서는 우리나라 농어촌 발전을 선도하는 유능한 정예 후계농업경영인이 양성되고 있다.

고흥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론과 실무역량을 겸비한 한농대 졸업생들이 농업 현장과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 교육을 확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u@kwangju.co.kr



광양시 중앙하수처리장 축구장이 '인조잔디 축구장'으로 새 단장한 모습.

<광양시 제공>

광양시 중앙하수처리장 축구장 인조잔디로 교체

새단장 마무리 29일부터 개방

광양시는 중앙하수처리장 내 기존 축구장을 인조잔디 축구장으로 새로 단장하고 오는 29일부터 개방한다고 밝혔다.

중앙하수처리장 내 축구장은 생태공원과 연계해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환경 기초시설에 대한 친근한 인상을 주기 위해 조성됐다.

이곳에는 9994㎡ 규모 축구장이 조성됐다. 지난해 11월 착공해 사업비 13억2000만원을 들여 기존 천연잔디를 인조잔디로 교체했다.

축구장은 골대(2조), 관람석(2개·100여 석),

감독석(2개) 등을 갖췄다.

축구장은 광양시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사용 신청은 사용일 기준 30일 이전부터 광양시 하수처리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쓰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광양시 하수처리과(061-797-3808, 2567)로 문의하면 된다.

박순옥 광양시 하수처리과장은 "새로 단장한 축구장에 많은 시민이 찾아와 건강한 여가활동을 즐기길 바란다"며 "앞으로 생태수변공원 등을 지속해서 개선해 하수처리장이 주민 친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여수시보건소, 다중이용시설 35곳 수질 검사

여름철 레지오넬라증 감염 예방

여수시보건소가 레지오넬라증 발생이 증가하는 여름철을 맞아 대형 건물 등 다중이용시설 35곳의 수질을 검사한다.

제3급 법정 감염병인 레지오넬라증은 레지오넬라균 감염에 의한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 대형 건물의 냉각탑 수, 다중이용시설의 급수시설, 샤워기, 분수 등의 오염된 물속의 균이 비말 형태로 인체에 흡입되면서 발생한다.

감염되면 발열과 기침,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을 보이며 대부분 2~5일 후 합병증 없이 호전된다. 하지만 만성폐질환자, 흡연자 등과 같은 고위험군은 폐농양, 호흡 부진, 신부전 등의 합병증이

올 수 있다. 심한 경우 사망(일반 치명률 5~10%)에 이를 수 있어 고위험군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 보건소는 28일부터 7월 말까지 대형 건물, 종합병원, 요양병원, 대형 목욕탕, 숙박업소, 분수대 등 다중이용시설 35곳을 돌며 수질을 검사한다.

검사 결과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될 경우 청소 및 소독 등 위생 지도를 실시한 후 재검사를 진행하는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최영철 여수시 보건행정과장은 "레지오넬라증 예방을 위해서는 냉각탑 수, 급수시설 등의 철저한 소독관리가 중요한 만큼 지속적인 점검을 통한 안전한 여수시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곡성군이 연 '희망밥상 나눔행사'에서 마을 어르신들이 한 끼를 대접받고 있다.

<곡성군 제공>

곡성군 '희망밥상 나눔' 어르신 건강 챙긴다

11개 읍·면 대상 10월까지 진행

곡성군은 오는 10월까지 '희망밥상 나눔행사'를 벌여 고령 주민에게 음식을 대접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4월 시작한 '희망밥상 나눔행사'는 곡성지역 11개 읍·면을 대상으로 오는 10월까지 진행한다. 이달 현재까지 곡성 신기마을 등에서 네 차례 행사를 열었다.

한국생활개선곡성군연합회 회원들은 이번 행사

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식재료 준비부터 조리까지 모든 과정을 담당하고 있다.

고령 주민들은 식사 외에도 치유 식품을 직접 화분에 심어보는 체험을 하며 정신 건강을 챙기고 있다.

이 지속 한국생활개선곡성군연합회 회장은 "바쁜 영농철임에도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매우 뜻깊다"며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부를 챙기는 소중한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곡성=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보성군농기센터 한우농가 맞춤형 사육 상담

하반기 농가 방문 현장 기술 지원

보성군이 한우 도매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 농가를 돕기 위해 맞춤형 상담을 벌였다.

보성군은 지난 26일 보성군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한우 사양관리 종합컨설팅'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상담은 보성군 농업기술센터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이 함께 열었다.

이날 한우 전문가가 고급육 생산을 위한 번식용소, 송아지, 비육우(고기소) 사양 관리 방법을 설명했다.

보성군은 올해 하반기 현장 기술 지원이 필요한 농가를 찾아 전문 상담을 발의 계획이다.

김숙희 보성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한우 도매가격 하락 등의 경영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 농가에 이번 상담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에 힘을 보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wilo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